

이달의 문화행사

※ 상기 공연은 '코로나19' 확산 여파로 인해 축소·연기·취소될 수 있습니다.

고양아람누리



유니버설발레단 <호두까기인형>

일시 12. 4.(토)~5.(일) 토 오후 3시·7시, 일 오후 3시
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
입장료 R석 8만 원, S석 6만 원, A석 4만 원, B석 3만 원, C석 2만 원

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스토리텔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발레 입문작 <호두까기인형>은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안무가 프티파·이바노프 콤비가 탄생시킨 작품이다. 80여 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무대, 원작의 스토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연출과 안무, '눈의 왈츠'와 '꽃의 왈츠'의 수준 높은 군무, 러시아·스페인·중국 등 세계 각국의 춤, 클라리와 호두까기왕자의 그랑파드되까지.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한 유니버설발레단 <호두까기인형>이 특별한 연말을 선사하기 위해 고양아람누리를 찾아온다.

2021 아람 로열 클래식 3 <이진상 & 김태형>



일시 12. 18.(토) 오후 4시
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
입장료 R석 6만 원, S석 4만 원, A석 3만 원

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며,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젊은 두 피아니스트 이진상과 김태형이 특별한 듀오 무대를 꾸민다. 한국 음악계를 선도하고 있는 동료로서 각자의 매력으로 활약해온 두 아티스트는 2019년 처음 호흡을 맞춘 이후 올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며 더욱 깊어진 둘의 파트너십을 보여줄 예정이다. 특히 더욱 완벽해진 호흡을 바탕으로 두 대의 피아노가 마치 대화하는 듯한 연주가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.

2021 아람누리 마티네콘서트 5 <송년음악회-Romantic Festa>



일시 12. 23.(목) 오전 11시
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
입장료 전석 2만 5천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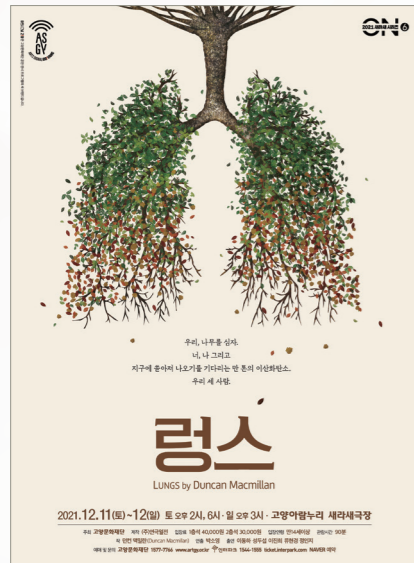
겨울날의 마티네콘서트는 로맨틱 페스타로 꾸며진다. 현재 가장 사랑받는 연주단인 '아벨 콰르텟'이 연주하는 슈포어의 '오케스트라와 현상사중주를 위한 협주곡' 등 교향곡 선율이 관객들의 마음에 전해진다.
출연진 코리아콰르텟, 지휘-이승원, 협연-아벨 콰르텟
프로그램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, 슈포어 오케스트라와 현상사중주를 위한 협주곡 Op.131, 차이코프스키 '호두까기인형' 모음곡,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4악장

2021 아람누리 오페라 콘서트 시리즈 4 라보엠 <낭만>



일시 12. 25.(토) 오후 4시
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
입장료 1층석 4만 원, 2층석 3만 원

스토리텔링을 곁들인 국내 정상급 오페라 가수들이 펼치는 명품 오페라의 향연, 아람누리 오페라 콘서트 시리즈가 선보일 네 번째 무대!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은 크리스마스이브를 배경으로 19세기 파리, 가난한 예술가들의 힘겨운 삶과 사랑에 대하여 낭만적으로 그린 작품이다. 전문연출가 이의주의 해설이 있는 오페라 라보엠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한다.



2021 새라새ON시리즈 6 연극 <렁스>

일시 12. 11.(토)~12.(일) 토 오후 2시·6시, 일 오후 3시
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
입장료 1층석 4만 원, 2층석 3만 원

영국 작가 '던컨 맥밀란'의 대표작으로, 2011년 워싱턴 초연 이후 1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다. 시의성 강한 메시지와 함께 한 연인이 겪어내는 장대한 시간과 고민을 무대장치, 조명, 의상 등 미장센의 사용을 최대한 절제한 채 풀어내고 있다. 두 배우가 주고받는 연기와 감정, 호흡으로 일생에 걸친 희로애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내는 독특한 방식이 연극 <렁스>의 관람 포인트다. 관객은 절제된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배우들의 에너지를 통해 배우 예술, 그 자체로서의 연극적 매력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.